

시울 주보

제2510호
2024년 7월 7일(나해)

연중 제14주일

사도 바오로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Bartolomé
Esteban Murillo, 1617-1682)로 추정
1650~1700년대, 캔버스에 유채, 105x92cm
파르마 국립 미술관, 이탈리아 파르마



입당송 | 시편 48(47),10-11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
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
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1독서 | 예제 2,2-5

화답송 | 시편 123(122),1-2 7.2ㄴㄷㄹ3-4(◎ 2ㄷㄹ)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보
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보나
이다. ◎

○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죽
도록 멀리만 받았나이다.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
의 멸시를, 저희 영혼이 죽도록 받았나이다. ◎

제2독서 | 2코린 12,7ㄴ-10

복음환호송 | 루카 4,18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
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 마르 6,1-6

영성체송 | 시편 34(33),9 참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
님께 바라는 사람!

약함의 위력



이경상 바오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자렛에서 가르치시자, 나자렛의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걸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마르 6,2)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내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마르 6,3)

나자렛 사람들은 충실하게 유다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도자들에게 배워 알고 있던 구세주는 예수님과 사뭇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전사처럼 원수들을 쳐부수고, 막강한 능력을 지닌 군주로서 위력적인 권세를 떨치며 백성을 해방하고 현실적인 부유와 풍요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하고 마음이 움직이지만, 곧바로 편협한 아집의 세계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치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감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몇몇 병자를 고쳐 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기적을 너무 많이 베풀면 그들이 잘못 배워 알고 있던 막강한 위력의 메시아 상을 잃은 것으로 더욱 착각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전능하신 분이

십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진정한 구원과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 인생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약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도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2코린 12,10) 그리고 보면 사실 눈에 보이는 강함과 약함은 진정한 권능을 지니는 것과 상반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러셨듯이 평범한 이웃들 안에 하느님께서 존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천군만마를 이끌고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동네 목수가 하느님입니다. 우리 동네에 같이 사는 철수와 영희의 오빠나 누이나 동생이 하느님입니다.

오늘 첫째 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예제키엘 예언자를 뽑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언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도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도 자신의 찬란한 이론을 설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하느님의 가치 서열 기준이 주는 참 행복의 맛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는 나와 평범한 주변의 이웃들의 약함에 담겨 있는 진정한 위력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느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심어주신 창조주 하느님의 본성이 발현됩니다.



사도 바오로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2코린 12,10) 하고 말씀하십니다.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을 원망하거나 낙담하는 대신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한 번 더 주님을 만나 은총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신앙의 시작



지진희 요한 | 연기자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연기자 지진희입니다. 믿음이 매우 부족한지라 저의 신앙 이야기는 되도록 안 하고 싶었기에, 처음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보기로 용감하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과 걱정이 됩니다. 형제자매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제 인생에는 유독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우연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큰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제가 삶을 좀 더 재미있게 살아가도록 계획하여 마련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저의 신앙의 시작은 언제일까 하는 생각에 천주교를 처음 접한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렸을 때, 커다랗고 특이한 모자를 쓰고 계신 인자한 외국 할아버지 사진이 할머니 집 벽에 걸려 있고, 아기를 안고 있는 외국 아주머니 인형이 그 앞에 놓여있던 모습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은 할머니 집과 가까웠고, 할머니 집에는 한 살 위 사촌 형이 있어서 거의 매일 놀러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진과 인형 그리고 기도하시던 저희 할머니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이야 그 외국 할아버지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이셨고, 아기를 안고 있는 외국 아주머니 인형은 성모자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큰아버지, 고모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태 신앙으로 제 곁에 계셨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사실 그때 저는 나

가 놀기 바쁜 초등학생으로 종교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어련히 계신가보다 생각했지, 하느님에 대해 별다른 구체적인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 다. 전 능하신 하느님이 계신다면 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세상에 전쟁은 왜 일어나는지, 왜 우리 앞에 안 나타나시는 건지, 어떤 착한 사람은 못 살고, 어떤 나쁜 사람들은 잘 살게 내버려두시는 건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나쁜 사람들은 분명 벌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제가 직장 생활을 할 즈음 할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게 되면서 할머니 방과 거실에는 자연스럽게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사진과 성모상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매일 성당에 가서서 미사를 봉헌하시며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가족에게 큰 영감이 되었고, 제 신앙의 시작은 그런 할머니와 부모님의 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지향

7월

아픈 이들에 대한 사목적 돌봄

병자성사를 받는 이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성사로 주님의 힘을 얻고, 모든 이에게
연민과 희망을 더욱 잘 드러내는
표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존재의 기쁨, 그것은 나눔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빨래골에 자리한 '헬렌켈러의집 주간보호센터'는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낮 동안 행복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의 중장년 발달장애인으로 연령대가 높다 보니 보호자들 또한 고령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들이 헬렌켈러의집 주간보호센터에 머무는 하루 9시간은 고령의 보호자들도 온전함감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 8시! 칠팔십을 훌쩍 넘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한 두 분씩 센터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가파른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사람은 자녀가 아닌 부모님들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지어진 지 족히 30년은 넘은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주간보호센터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두운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까마득한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손짓으로 인사합니다. 자녀가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안심하며 돌아섭니다.

센터의 화장실 앞은 늘 문전성시입니다. 20여 명이 한 칸의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 늘 '사용 중'일 때가 많기 때문

입니다. 용변 실수가 잦은 날은 화장실이 항상 사용 중이라 이용자의 손을 잡고 인근의 수유1동 주민센터로 뛰어가야 합니다. 뛰는 것이 불편한 이용자들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 용변을 참지 못해 옷에 실수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할 생각도 했지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임대료와 인건비, 운영비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바자회 등으로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도 봤지만 장애인 시설에 대한 편견으로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행여 이용자들이 센터를 이용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발생할까 두려워 운영 중단까지 고민했지만 이마저도 없으면 그 어디에도 갈 곳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생각하니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선뜻 실행에 옮길 수 없었습니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에 늘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헬렌켈러의집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은 최선을 다해 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인 공인 중증 발달장애인은 물론 보호자, 사회복지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사람됨, 즉 존재의 기쁨이 되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가파른 계단 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가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라는 고령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헬렌켈러의집 주간보호센터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카리타스 공동체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4년 7월 6일~8월 2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헬렌켈러의집 주간보호센터'를 위해 씁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html/dh/spon_songil) - 사랑의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들이 주님 앞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판관 5,5ㄱ)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유변학(流變學)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고체가 액체처럼 흐르거나 변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유변학에서 사용하는 개념 중에 ‘드보라의 수’(Deborah number)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관찰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그 숫자가 1보다 많이 크면 물체가 변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그 물체는 고체에 가까운 특성을 갖는다는 뜻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한 시간 단위로 관찰했는데, 그 물체가 열 시간이 걸려 변화했다면, ‘드보라의 수’의 값은 1보다 큰 10이기 때문에 고체에 가까운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개념을 처음 제안한 마르쿠스 라이너(Markus Reiner)는 판관 드보라가 부른 노래(판관 5,5ㄱ)에서 그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드보라의 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판관 5,5는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시나이의 그분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앞에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판관 드보라가 가나안 임금 야빈과 싸워 이긴 후에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 중 일부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의 흥미를 끄는 부분은 5절의 앞부분입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נָזַל(nāzal)입니다. 이 동사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떨다/흔들리다’(to quake)이고 다른 하나는 ‘흐르다’(to flow)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번역도

가능합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영어 성경들이 이러한 번역을 선택합니다. [예) “The mountains flowed with water at the presence of the Lord.”(NASB)] 이 두 번째 번역을 보면, 어떻게 이 구절이 유변학과 연결될 수 있는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의 수’라는 개념 안에서는, 산도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관찰 시간을 아주 오랜 기간으로 늘리면, 산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관찰 시간을 변화시켜 의미를 찾는다’는 관점은 신앙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나고 보니 하느님의 뜻이었다.” 일상의 짧은 순간에는 하느님의 뜻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조금만 더 길게 본다면, 당시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느님의 손길을 나중이라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거대한 산도 조금씩 계속 변화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느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해도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느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WYD 기초연구팀을 소개합니다!

기초연구팀 팀원 인터뷰

WYD(세계 청년 대회)에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김수지 가브리엘라 | 발산동성당]

WYD를 준비하며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각자의 활동 경험을 나누며 이를 WYD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앞으로의 청소년과 청년 사목의 방향성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준비하기 위해 모인 분 중에 WYD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어쩌면 서울 대회만의 고유한 모습을 만들어 주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장소현 데보라 | 월계동성당]

“그대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를, 만나게 되기를, 사랑하게 되기를!”(성 호세 마리아) 다가오는 WYD를 통해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와 만남 안에서 그분께서 함께하시는 사랑의 길을 같이 걸어갈 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 안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러 와 주시는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교회와 세상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옆자리를 내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영은 유스티나 | 가락동성당]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위로를 받

을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행사들이 많지만, 영적인 위로는 WYD만이 줄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에서 오는 WYD 참가자뿐만 아니라 WYD를 준비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다 같이 많은 기쁨과 영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WYD 기초연구팀 활동을 진행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김수지 가브리엘라]

교회를 떠난 청소년과 청년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 경험이 저에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17지구에서 같이 활동했던 교사들과 연락이 닿아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함께 활동했던 기억, 감정, 느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이번 WYD도 잠시 교회와 멀어진 나의 친구, 형제자매를 교회로 다시 초대하는 기쁨의 잔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소현 데보라]

기초연구팀은 WYD를 ‘함께하는 기도’



로 시작하겠다는 첫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께 청하고, 귀 기울이며, 서로 경청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던 매 순간들을 통해, 이번 대회는 교회 내 다양한 구성원 모두 하느님 사랑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여정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 삶의 현장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금 하느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영은 유스티나]

장애인 주일학교 교사로서 발달장애 학생들의 자리를 잊지 않는 WYD가 되어, 이들이 WYD에 더 많이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목소리나마 보내고자 기초연구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고 보니, 이미 기초연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많이 진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구장님과 함께한 자리에서 교구장님께서 장애인들을 더욱 특별히 기억하여 그들을 위한 WYD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동받았고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로고스적 존재



신승환 스테파노 |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철학의 핵심 물음입니다. 철학은 인간이 관계되는 모든 주제를 해명하는 학문이지만, 그 과제는 인간에 대한 이해로 모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이해가 또한 인간이 접하게 되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토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철학의 핵심이며, 그에 따라 세계의 모든 사물과 사건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를 철학에서는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자기 이해이면서 또한 이 자기 이해가 인간이 이루는 모든 활동의 토대가 된다는 말이지요. 문화와 과학기술, 학문과 예술 등 모든 것은 이 자기 이해 위에 자리합니다.

고대 철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자기 이해를 ‘로고를 지닌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로고스(logos)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이 가진 ‘말’을 가리키거나 또는 인간의 본성적 능력인 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세계를 이루는 근본 원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로 이 모든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로고스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해명하는 지성적 능력을 지녔으며, 그것이 말/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핵심적 원리가 세계의 근본 이치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이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유럽 철학의 핵심적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철학의 질문이 결국 인간에 대한 자기 해명에 있다면 이 전통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유럽의 계몽주의는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해명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성을 인간의 본질로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는 계몽을 인간의 본질적 의무로 강조합니다. 계몽이란 자신의 이성을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에서 벗어나 이성을 토대로 해서 외부적 권위가 아니라 ‘감히 스스로 행동’하도록 촉구합니다. 계몽은 인간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결정적 원리입니다. 계몽은 밖으로는 현대 세계의 모든 것은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면서 또한 안으로는 인간다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성의 빛을 내면으로 비추어 성찰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인 까닭이란 말이지요.

오늘날 많은 철학이 이런 전통을 비판하는 까닭은 이 안에 담긴 인간중심주의 때문입니다. 과연 인간은 세계의 주인이며 모든 존재의 중심일까요? 아니면 인간은 그저 세계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생명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까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철학은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이 이루는 거대한 그물망의 한 코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안에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현실적이며 문화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일면적인 인간 중심과 로고스 중심의 철학을 비판하는 흐름이 자리하고 있지요.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2년 7월 10일 정규량 레오 신부(69세)
- 1997년 7월 12일 정육진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78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교구청 알림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문의(접수): 02)727-2081, 010-6234-6910 직장사목팀 큰사랑봉사회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제51회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전관
전시일정: 7월3일(수)~11일(목)

제64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자구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때: 7월18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접수 안내

때: 7월20일(토) · 7월21일(일) · 7월23일(화)
곳: 천호성지, 여산 하늘의 문 성당(백지사 터, 숲정이, 배다리) / 회비: 1인 5만원
신청: 7월8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프로그램 안내

1) 2024년 4대 중단과 함께 하는 살(재)사(명)하(자)프로젝트 열린포럼
주제: 삶으로 만나는 생명이 이야기
대상: 자살유가족 및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
때, 곳: 7월24일(수) 14시~17시, 원불교소태산기념관(전철 9호선 흑석역)

2) 7월 유가족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집전: 최남식 신부
때, 곳: 7월20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
때: 7월9일 13시30분~16시30분 매월 두번째(화)
곳: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제29회 농민주일 및 가농소 입식운동 20주년 기념행사

대상: 우리농 활동가, 우리농 후원회원 및 일반회원
내용: 제29회 농민주일 및 가농소 입식운동 20주년 기념미사, 공로상 및 특별상 시상, 문화공연, 전시마당, 농민과의 만남 등 / 회비: 1인 1만원
때, 곳: 7월21일(일) 오전 7시, 가톨릭회관(명동) 후문 출발, 가톨릭 사지대학 두봉관 / 문의: 02)727-2275, 2277(wrn.or.kr)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민족화해위원회

1) 1426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7월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벽본당': 평양교구 강서 본당
문의: 02)727-2420
2) 평화 증진 관심 청년 모임 '토마소회' 모집
자격: 한반도, 화해, 평화 주제로 연구 중인 대학원생 및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청년
활동: 가톨릭 통일 · 평화 청년 연구자 모임
문의: 02)3789-0815 민족화해위원회(caminjok@naver.com)

2024 신구약 성경통독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 강: 조창수 신부
때: 매주(월) 또는 (화) 13시~15시, 월요성경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곳: (월) 가톨릭회관 3층, (화) 예수회센터 106호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통독 아카데미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2025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혼인 예약 안내

1월~6월: 7월19일(금) 14시, 대성당 / 문의: 02)774-1784
낮 12시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첨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이 불가합니다

7월~12월: 2025년 1월~2월 중 추첨 예정(추첨 일정 별도 공지)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첨 일정은 교구 및 본당행사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손길 2023년 상반기(1월~4월) 모금 현황

후원에 대한 자세한 후기는
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후기 큐알(QR)



1월 사연

우리들의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아이들의 소중한고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모금 기간: 2022년 12월 31일~2023년 2월 3일
총 모금액: 57,456,355원



2월 사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취약계층지원사업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모금 기간: 2023년 2월 4일~3월 3일
총 모금액: 61,444,384원



3월 사연

자라는 씨앗 특수교육 센터(미안마)
오늘도한뼘, 씩씩하게 자라나는 아이들
모금 기간: 2023년 3월 4일~3월 31일
총 모금액: 30,897,071원



4월 사연

신망애의집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무연고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쫓돌이 되어주세요!
모금기간: 2023년 4월 1일~5월 5일
총 모금액: 83,704,276원

인준단체 알림

모임

글라젯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때, 곳: 7월14일(일) 11시~15시, 글라젯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회비 없음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강사: 김성대 신부(도미니코 수도회) / 점심 무료
대상: 누구나 / 문의: 010-4444-1264
때, 곳: 7월17일 12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

청담동성당 '일일치유 대피정'

강사: 김현우 신부 / 문의: 010-3724-1607, 02)3447-0750
때: 7월15일(월) 9시30분~17시(김밥·생수 제공)
곳: 청담동성당(전철 7호선 청담역 9번 출구) 2층 대성전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매주(화) 7월9일 12시30분~16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진홍장 회장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 피정

때: 8월29일(목) 18시~9월1일(일) 16시
곳: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 집 / 김동일 신부(예수회)
회비: 30만원 / 계좌: 농협 301-0197-3172-01
문의(접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교육

주제: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대상: 청년 남녀 누구나 / 문의(접수): 010-9099-2337
때: 7월19일(금) 20시~21일(일) 13시 / 회비: 6만5천원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성모 승천 수도회 성지순례

1) 도보 성지 순례
때, 곳: 7월20일(토), 청양 다라골 외(수원교구 외)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2) 중부 유럽 수도원 순례(오스트리아·독일 외)
때: 8월23일(금)~9월4일(수)
사전 접수 필수 / 문의: 010-2378-9104

비대면 심리독서모임 / 문의: 010-7241-2236

주최: 토틈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 수녀원
14기 7월26일(금)~28일(일) 15기 9월27일(금)~29일(일)

12서초지구 일일 성령기도회

미사·안수 / 문의: 010-7393-7924
때, 곳: 14시~17시, 서초동성당 대간관 1층(주차 가능)
7월1일 강요셉 신부 7월29일 김성대 신부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31)321-9054, 010-4154-0885
2박3일 8월2일~4일 8박9일 8월5일~13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8차 7월19일(금)~27일(토) 2024년 7월 9
제129차 8월9일(금)~17일(토) 010-3540-9001
제130차 9월13일(금)~21일(토)

파티마 성모님 발현 피정

강사: 강언덕 신부(예수회)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곳: 7월13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7층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7월19일(금)~22일(월)·8월16일(금)~19일(월)·9월20일(금)~23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삼성산 피정의 집 7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때: 7월13일(토) 12시~17시30분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미사·안수 있음(중식 제공)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성지순례·성 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전례 탐방

때: 8월24일~26일(대구 17곳), 10월3일~6일(수도원·부산 8곳·마산 6곳), 10월12일~16일(울릉도·독도·수도원) / 출발: 명동성당 후문
문의: 010-3807-1784 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천당예복을 갖추어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곳: 매월 둘째주(토) 7월13일 14시~18시, 구산성지
찬양: 고영민 / 8월은 방학입니다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우도해변 포함 7월20일~22일·7월25일~28일·8월1일~4일·8월6일~8일·8월10일~13일·8월24일~26일, 9월2일~4일·9월7일~9일·9월21일~23일·9월26일~28일, 추자도 포함 9월11일~14일·10월5일~8일·10월27일~30일 /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피아골 피정

문의(접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소록도	8월3일~5일
홍성남 신부와 성지순례	이브스키 10월28일~11월1일 제주교구 12월16일~19일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효소 단식	7월11일(목)~14일(일), 8월9일(금)~12일(월)
성경 완독	7월26일(금)~8월3일(토), 8월23일(금)~31일(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역여행 열두 소예언서	8월15일(목)~17일(토)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여름 특별 피정(우도 해변 포함)	7월25일~28일, 8월2일~5일, 8월8일~10일, 8월14일~17일, 8월21일~23일
생태순례	9월1일~3일, 9월20일~22일, 9월28일~30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9월7일~10일, 11월3일~6일

청년 여름 침묵피정

때, 곳: 7월19일 20시~21일 13시, 예수마음배움터(경기도 파주시 한빛로21) / 대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
문의: 010-6327-0398 성심수녀회

교육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수업참여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수업내용: 검정고시·수능, 기타, 원어민영여회화, 토론·글쓰기, 사진, 바리스타, 코딩 등
봉사자 모집: 검정고시(전과목), 수능·학습지도 가능한 분 /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성 이나시오 학교 학생 모집

1년 동안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함께 공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접수, 수업료 없음
대상: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성별·연령 무관)
때, 곳: (월~금) 19시~21시40분, 서강대학교
교무실: 서강대학교 곤자가플라자(마포구 백범로 35)
문의: 02)717-8248 교무실, 010-2224-1342 신예은 선생

도림동교육센터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오프스데이)

대상: 재학 중인 남학생 / 홈페이지: dorimdongcenter.org
내용: 가을학기 기숙사 학생 모집, 가족과 공부 분위기, 여러 교육 프로젝트(문화·봉사활동·문학·운동·국제교류 등), 개인방+개인화장실
운영·영성지도: 동아시아국제교류재단·오프스데이
문의: 010-2554-1507(dorimdongcenter@gmail.com)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2025학년도 1차 모집 / 문의: 02)705-8678
원서접수: 7월1일(월)~31일(수) / 전형일: 8월3일(토)
입학설명회: 7월27일(토) 14시 / 모집: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게임 개발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본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입학시 장학혜택 제공,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홈페이지: www.soganggame.ac.kr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이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초보자 반주정구	매주(목) 13시30분 / 회비 있음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여름성소캠프

선착순 접수 / 문의: 010-6608-3217 성소담당 신부

일반부	8월6일(화)~8일(목), 경남 산청 성심원
중고등부	8월2일(금)~4일(일), 경남 산청 성심원

예수회센터 가을학기 강좌

9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화)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공간과 순례	최화선 박사
(화)	성경대학-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2	송봉모 신부
(수)	죽음수업	홍기령 교수
(수)	영성과 심리의 통합 두번째 길	최지원 수녀
(목)	구약성경 아카데미-구약성경의 기초	주원준 박사
(목)	마르코의 예수 이야기	박상훈 신부
(금)	삶의 의미-철학적 도박, 신학적 리액션	김민철 신부

성물·묵주 조각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8월7일~21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레식기타회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9월·1월 입학 / 초5~고2, 미국·아일랜드(단기 가능)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말씀의 집 성서백주간 모집(성서백주간)

성경 전체를 통독, 묵상, 나눔, 실천하는 모임으로
서 분당 내에서 백주간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
한 새로운 반을 개설합니다 / 문의: 010-3557-4410
곳: 말씀의 집(신월동) / 7월31일까지 선착순 접수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한누리아동센터 자원봉사 모집

문의: 02)735-3633
곳: 전철 3호선 독립문역 / 홈페이지: www.hnr.or.kr
초·중·등 국어·영어·수학·미술·음악 등

시스티나시니어합창 단원 모집(혼성)

그레고리오성가, 전례음악, 라틴어 미사곡에 관심
있으신 55세 이상 남녀 교우(성가대 유경험자 환영)
10월30일 비발디 '글로리아' 전곡 연주 예정
'다함께성가를TV' 이호중 교수 지휘 / 010-9842-8818
때, 곳: 매주(수) 14시~16시, 시스티나음악원(주최, 신촌)

서울대교구 어린이 합창단 '마니피캣'에서 함께 노래할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대상: 초2~6학년 가톨릭(예비)신자
오디션: 자유곡 1곡 및 음감테스트
때: 7월23일(화) 19시30분 / 문의: 02)338-7830
곳: 청년문화공간JU(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연습: (화) 18시·(일) 13시·둘째주 명동대성당 10시 미사
접수: 홈페이지(www.yju.or.kr) 부서소개 게시판 참조

미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7월13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7월18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안내

익산 성클라라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수도원을 철거하고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도움을 검토되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뽀자비의수녀회)

중립동약현성당 2025년 1~3월 혼인예식 추천

때: 7월14일(일) 15시 / 문의: 02)362-1891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100만원 / 주의사항-2025년
4월~12월까지 예약은 10월 중에 추첨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2025년 상반기 역삼동성당 혼인미사 접수

접수: 7월13일(토) 9시 / 온라인 선착순 접수
혼인미사 희망 월: 2025년 1월~6월
혼인미사 시간: (토) 12시·15시 / 02)553-0801 사무실
곳: 전철 2호선 역삼역 1번 출구, 도보 7분
자세한 사항은 역삼동성당 홈페이지(www.yscatholi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 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가족·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때	때
때	때

전진상 영성센터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강점코칭 워크숍 8월27일(화) 10시~13시 / 강사: 정연순
(8월 특강) 회비: 8만원(검사비 포함)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모래놀이치료, 종합심리검사·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카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분들, 술로 인한 상처로부터 회복의 길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알코올 의존자 주·야간교육 및 가족교육 운영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대인관계, 부부,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9146-7654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 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 우울증, ADHD, 공황장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분,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교육	토닥토닥잘될거야 심리여행: 7월17일~8월28일(수) 10시~12시(7주) /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교육과정: 7월17일~9월11일(수) 18시30분~21시(30시간)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문의: 010-7171-9503

목동성당 방호원 모집 / 문의: 02)2643-2212

대상: 신자로 시설관리·방호·영선·미화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채용시까지 방문·우편(우 08011, 양천구 목동서로 271, 목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subhee@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세탁 근무자 모집

곳: 영등포구 /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세탁 근무자 0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7월21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인현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 문의: 02)884-1581

대상: 신자로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분
업무: 시설관리, 전기, 방호, 미화, 화단정리 등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각종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7월20일(토)까지 이메일(andy9314@seoul.catholic.kr) 및 방문·우편(우 08797,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8길 78-2)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지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매월 둘째주(일)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7월20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순교복자뽀마수녀회	전화 상담 후 결정	전화 상담 후 결정	010-3355-4997, 010-8669-6383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게재된
시간 검색

신간

지혜 여정 - 서간4
(히브리서 · 가톨릭 서간)김효준 지음
생활성서사 | 160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신약성경에서 바오로 서간 범주에 든 성경을 제외한 모든 편지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다룬 성경 공부 교재이다. 히브리서와 가톨릭 서간은 당시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신자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씌어졌다.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신간

지혜 여정 - 묵시록
(요한 묵시록)한재호 지음
생활성서사 | 176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이 책은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자칫 오해하기 쉬운 '요한 묵시록'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을 수 있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는 성경 공부 교재다. 요한 묵시록이 '재앙의 책'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득한 '행복의 책'이라는 점을 깨닫고 핵심 메시지를 우리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준다.



신간

나의 음악, 나의 기도
한 사제의 음악 이야기원종철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300쪽 | 2만3천원
문의: 02)740-9718

이 책은 《음악은 나의 기도 2》에 이은 후속편으로, 저자가 이른 새벽에 음악을 들으며 떠오르는 단상, 경당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미사 드릴 때 떠오른 묵상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음악 한 곡 한 곡에 얹힌 자신의 일화와 음악가들의 삶과 음악 이야기를 산책하듯 편안하게 풀어냈다.



콘서트

스물두 번째 편지

때: 8월 30일~9월 12일 / 시간: (화~금) 14시
8월 30일(목) 19시 / 월(9월 2일·9일) 19시, 토(8월 31일·9월 7일) 16시·19시, 주일(9월 1일·8일) 16시
곳: 명동성당 게스트홀
입장권: 전석 1만원 / 문의: 02)3789-7702
얼리버드 티켓 예약 시(7월 7일~31일)
40% 할인

신청
큐알(QR) 스캔

김대건 신부님이 직접 쓰신 편지를 바탕으로 신앙과 삶의 역경을 낭독극의 형식으로 펼쳐나가는 공연이다. 다섯 명의 배우가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를 극적인 상황 안에서 연기하고 그 의미를 해설하는 가운데, 그분의 편지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곡들을 연주한다. 최효영 신부와 연주팀의 협주가 공연의 감동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공모전

2024년 모여라 가톨릭
영상 공모전

때: 8월 1일(목)~9월 1일(주일)
문의: 031)8019-5403 수원교구 모여라 가톨릭팀

2024년 모여라 가톨릭 하반기 영상 공모전이 8월 1일(목)부터 9월 1일(주일)까지 진행된다. '신앙캠프 뭐하니?'(주일학교 여름 신앙학교와 관련된 자유 영상)를 주제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모여라 가톨릭'에 공유하면 된다. 본당·단체·수도회 및 세례받은 신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연극

뷰티풀 라이프

때, 곳: (화~금) 19시 · (토~주일 및 공휴일) 14시
30분 · 17시 30분, JTN아트홀 4관
전석: 5만원 / 문의: 02)719-0988(평일 11시~18시)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68% 할인

<뷰티풀 라이프>는 평범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벌어지는 우리네 가정 이야기를 잔잔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연극이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들, 부부로 살아가며 생기는 사소함과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다툼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을 재미있게 풀어냈다.